

모심의 삶

천정궁모심회 소식지
Vol. 4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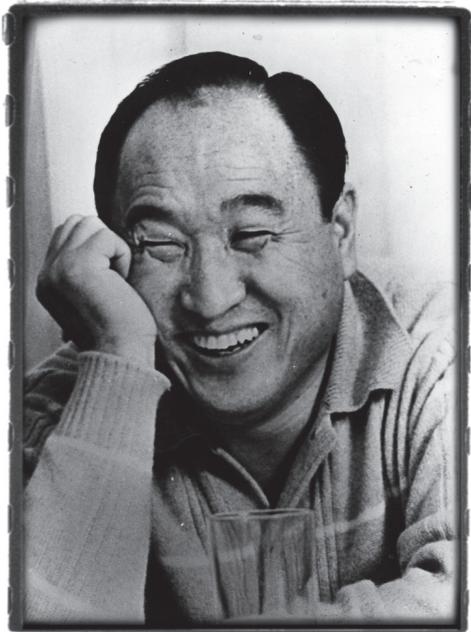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식 회고

특별전 리뷰

참아버님의 시(詩)

‘님이여 피어나소서’와 ‘임(任)에게’





모심의 삶

천정궁모심회 소식지 Vol.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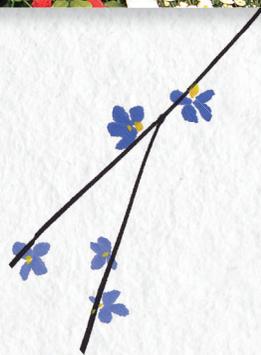
발행일 2013년 7월 30일 | 발행인 훈모 김효남 | 발행처 천정궁모심회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14-1 | Tel 031-589-1096
Fax 031-589-1008 | E-mail member@cjgm.kr
디자인 디자인하다 02-3445-1993 | 인쇄 모모프린코

-
- | | | |
|----|--------------|----------------------------|
| 04 | 특집 | 끝없는 사랑을 내려주신 참부모님 |
| 10 | 모심칼럼 | 모심생활의 시작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마음가짐 |
| 14 | 천정궁의 소중한 이야기 | 하나하나 소중한 참부모님의 일상을 회상합니다 |
| 16 | 참부모님을 따라서 | 양평 두물머리 |
| 18 | 참부모님 애창가요 | 천년바위 |
| 22 | 모심스케치 | 참아버님의 그리움으로 가득 찼던 천정궁 순례 |
| 26 | 함께하는 이벤트 | 천정궁 순례기념 가족사진 촬영 |
| 28 | 특별전 리뷰 | 참아버님의 시(詩) |
| 30 | 추억의 사진 | 참아버님의 휘호(揮毫) |
| 32 | 광고 | 참아버님 천주성화 1주년 특별전시 |
| 34 | Special | 천정궁모심회의 가치와 의의 |
| 36 | 나눔공간 | 회원소개 |
| 38 | 모심회 소식 | 천정궁모심회 회원 모집 및 간증 모집 |
-



끝없는 사랑을 내려주신 참부모님

- 천주성화식 13일의 기억



정신 없이 보낸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참아버님의 건강이 위중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만해도 곧 쾌유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사히 회복하셔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대비도 늦추지 않았으나 모두의 바람은 건강히 돌아오시는 참아버님이셨습니다.

애석하게도 멀지 않아 들려온 참아버님의 성화 소식은 모든 식구님들에게는 충격과 비통이었습니다. 실감할 새 없이 성화식을 위해 일시분란하게 안팎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천정궁 직원들도 슬픔의 감정을 드러낼 겨를도 없이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운



한결같은 참부모님의 심정

오직 하늘부모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생 전체를 바쳐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로서 살아 오셨던 참아버님이셨습니다. 술한 고난과 시련을 넘어 승리하신 참부모님은 복귀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하셨고, 동시대를 살던 저희들에게도 끊임없이 귀한 축복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쉬임 없이 참사랑의 말씀을 주시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던 참아버님도 이제 구순을 넘기셔서 절대적으로 건강을 염려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참아버님은 조금이라도 거동이 가능해지면 또다시 움직이시고, 혼동회를 주재하시며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시던 8월 어느 날, 폭염의 날씨에 참아버님께서서는 모교인 오산고등학교를 방문하셨고 결국 건강 상태는 악화되어 입원하셨습니다. 며칠 후 천정궁에 돌아오셨으나 호흡조차 힘든 가운데에서도 참아버님께서서는 천정궁과 천원동산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시곤 또다시 병원으로 가는 차에 오르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서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천정궁을 찾으셔서 돌아보시곤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살아생전 마지막 천정궁 산책을 하셨던 이날 참아버님께서서는 지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처럼 하늘부모님께 바친 생애 속에 섭

리적 완성완결완료의 보고를 드리셨습니다. 성화하시기 전 천정궁에서 하신 최후의 기도는 짧지만 비장했으며, 절대적인 신념과 헌신으로 점철된 참아버님의 일대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화, 13일간의 애도물결

약 한 달간 병상에 계신 뒤 천력 7월 17일 오전 1시 54분(양 9. 3), 참아버님께서서는 복귀원에 텐동산 청평성지에서 93성상으로 성화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의 성체는 천정궁으로 모셨고, 안팎으로 성화예식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성화 소식은 국내외로 전파되었고 9일간 전세계 전현직 수반, 평화지도자, 국내외 귀빈, 통일가 공직자와 식구 등 특별 참배기간을 맞아 천정궁을 찾았습니다. 특별친견실은 참아버님의 성체를 투명유리관에 보존한 상태로 참배객이 참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참아버님을 직접 모시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천정궁의 수행원과 직원들은 더욱 극진히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참아버님 생전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북한을 비롯해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과 수상들도 동시대를 함께 보냈던 위인의 타계를 애도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내외 방송사, 언론사도 참아버님 소식과 참배 현장을 성화식 기간 내내 알렸습니다. 참배와 애도의 기간, 성화식에 이르기까지 연일 관심을 갖고 취재했습니다. 천정궁도 끊임없이 참배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식구님들은 참아버님의 성체를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눈물로 참배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 슬퍼하시는 분은 참어머님이셨습니다. 이미 두 눈은 부어 계셨고 육신도 많이 힘드신 상태에서도 참어머님께서 매일 새벽 5시에 가장 먼저 친견실을 찾으셔서 참아버님께 문안을 드리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누워 계시는 참아버님을 향해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참자녀님과 손주님, 참가정도 아침 저녁으로 들러 친견의 예를 드리셨고 참배기간 동안 상주로써 참배객을 맞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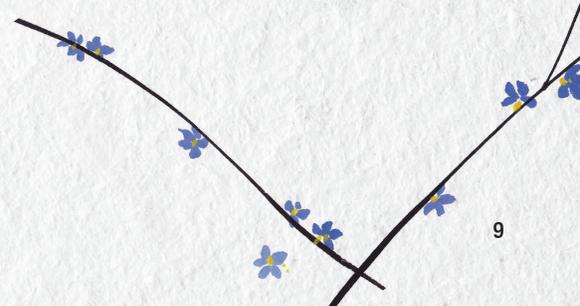
눈물의 천주성화식

참배와 정성의 기간을 마치고 13일째 되는 천력 7월 29일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천주성화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칠기재궁에 모신 참아버님 성체는 꽃차를 타고 천정궁을 출발해 3만 5천여명이 자리한 월드센터로 이동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의 생애업적이 담긴 영상시청, 성화사, 송사, 헌화, 억만세 삼창 등의 주요 식순을 거치며 성화식은 3시간가량 엄숙히 진행되었습니다. 성화식을 마친 후 원전식을 위해 참부모님은 다시 천정궁으로 올라오셨고, 길가에 도열한 수많은 식구들은 통일기를 흔들며 환송해주었습니다. 천정궁 뒷산 천성산에 마련한 원전지에는 참가정을 비롯해 통일가의 각계 대표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체 하관 후 원전식의 공식 식순이 시작됐고 말씀훈독, 헌화, 헌도를 올렸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참아버님이 계신 원전지를 '본향원'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참아버님의 성화식과 원전식을 완료한 이후에도 본향원에서는 삼일예배, 추석절 참배예배, 40일 본향원에 배를 드렸습니다. 참아버님 성화 100일 추모식에는 참석객이 본향원에 들러 경배를 드린 후 본관 연회실에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말씀 때마다 참어머님께서 식구들에게 새롭게 출발하기를 바라시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대모님도 본향원에 수시로 찾으시고 아버님과 영적이고 심정적인 교감을 하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본향원이 천정궁 안에 있어 찾고 싶을 때에는 언제라도 갈 수 있고 참아버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무척이나 좋다고 하십니다.

천정궁과 본향원이 하나이듯이 참아버님과 참어머님과 천정궁은 하나입니다. 侍



모심생활의 시작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마음가짐

글 | 심우옥 (72가정)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는 스물 다섯 살이 되던 1963년 6월부터 참부모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올해 7월이 지나가니 모신지 어느덧 50년이 되었습니다. 돌아 보면 지난 50년 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바라는 길을 따라 살아왔고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삶이었음을 생각하면서 늘 하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뜻을 중심삼고 모심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키워주신 덕분이기에 항상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부모님을 알고 보니, 또 뜻을 알고 보니 낱아주신 육신의 부모님 이전에 이미 하늘부모님께서 제 마음 속에 계셨고 순리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깊은 감사량을 절절히 느끼게 되어 지금까지 감사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미처 몰랐었지만 지나고 보니 늘 제 삶의 방향과 지표를 세워 놓으시고 생각과 판단이 중심축을 따라 움직이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짐과 결심의 훈련

모심의 생활, 어떻게 모셨는지 돌아보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늘 모심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제 마음가짐은 어떤 경우라도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는 기준을 세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경우'란 말은 좋은 일에는 쉽지만 어려운 일에는 쉽지 않은 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늘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다시 다짐하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만한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역적으로 내 물려 일가가 몰살 당하게 된 충신의 집안에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 충직한 머슴은 집안 전체 전체가 불길에 휩싸여 방향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인의 대를 이을 손자를 구해냈습니다. 포대기에 어린 손자를 둘러싸 안고는 험한 난관을 헤치며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산 속에서 평생을 바쳐 손자를 모시고 무예를 가르치면서 훗날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인물로 키워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아! 나도 그 충직한 머슴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독백처럼 읊조렸던 그 때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참부모님을 모시면서 굳은 다짐이 되었습니다. 일생을 두고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 다짐을 확인하고 반복하고 확인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 어릴 적 저의 결심은 참부모님을 모시며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었습니다. 삶의 전부가 되어 갔습니다.

동화 속 이야기도 저의 일처럼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효녀 심청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청이는 공양미 삼백 석만 부처님께 시주하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말에 험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딸입니다. 제가 심청이와 같은 심씨 성을 가져서 그런지 심청이의 효심이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로 보이지는 않았습다. 오히려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하나?'하고 되뇌면서 심청이처럼 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일본으로 보내시며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일본을 어머니 나라로 거듭 거듭나게 하는 소명을 받았습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공양미 삼백 석이 있어야 어머니 나라로 탄생할 수 있는 섭리적 상황이었습다. 효녀 심청 글을 읽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죽어야 하나 많은 고민 속에서 살았더니 정말로 공양미 삼백 석을 하늘 앞에 바쳐야 하는 일이 눈 앞에 벌어졌습다. 저의 부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놀랍고도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에 입에서는 '참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터져 나왔습다.

우연인 것 같던 일도 지나고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말이 있습다. 지나고 보니 제가 일본에 간 것은 우연 같았지만 필연이었음을 깨달았습다. 충직한 머슴이나 심청이처럼 주어진 뜻을 위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오랜 시간 고민해 온 일들이 제 삶을 함부로 살지 않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 준 것 같습다.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50년이 넘도록 모심의 생활을 하지 않았나 생각습다.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제가 참부모님을 모시며 겪은 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모심회 식구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다. 50여 년 전이니까 1960년 초입습다. 그 당시에는 한창 자랄 나이인 어린 참자녀님들께 우유조차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웠던 형편이었습다. 이런 때가 있었다는 게 이해되실 지 모르겠습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집다.

'우옥 언니가 우유도 못 먹어서 형제들 중 제 키가 제일 작잖아요!'
이제는 옛날 이야기지만 어쩌다 한 번씩 참자녀님들께서 농담처럼 말씀하실 때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듭다. 참가정의 가족사진을 볼 때면 참자녀님들의 키를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있습다.

당시만 해도 형편이 말 못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워 참부모님께 진지상을 올려드리고 나면 내일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단돈 백 원이 없어서 시장에 가려다 올기도 많이 올렸습다. 식구님들께서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참부모님과 참자녀님들을 그렇게 모실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다. 그 어렵고 죄송스러운 시절을 견뎌 내면서 비록 최고의 환경은 아닐지라도 언제나 최고의 마음가짐으로 모셔야 한다고 수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참부모님을 모시는 일에는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습다.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시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다.

모심회 식구님들의 정성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참으로 귀한 마음가짐이며 실천이라고 생각습다. 스스로 모심의 길을 찾고 정성을 들이는 생활이 우리가 참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다. 오직 하늘부모님을 중심 한 심정만이 모심의 생활을 가능하게 합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모심의 삶을 살도록 해 주었습니다. 모심회 식구님들께서도 간절한 사랑과 정성이 모심생활의 시작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합다. 항상 식구님께 감사 드립니다. 待

하나하나 소중한 참부모님의 일상을 회상합니다

참부모님의 작고 소박한 생활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정주', '안주'가 왔어요. 2013. 5. 2

기원절 경축오찬 때 첫 인사를 드렸던 정주 안주가 한국 적응훈련을 마치고 천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주 안주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부모님의 탄신과 기원절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온 천연기념물 368호 풍산개로 주인을 잘 섬기고 용맹하며 충성을 다하는 명견입니다. 이름은 참부모님의 고향에서 따와 정주와 안주라 붙였습니다.

정주 안주가 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신 참어머님께서서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정주 안주도 고향에 온 것 마냥 이리저리 뛰어 다녔습니다. 정원주 보좌관이 낭랑한 목소리로 북한말로 쓴 정주 안주의 자기 소개 편지도 읽어드렸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 참어머님께서서는 '정주야, 잘 커!', '안주야, 잘 커!'라고 축복 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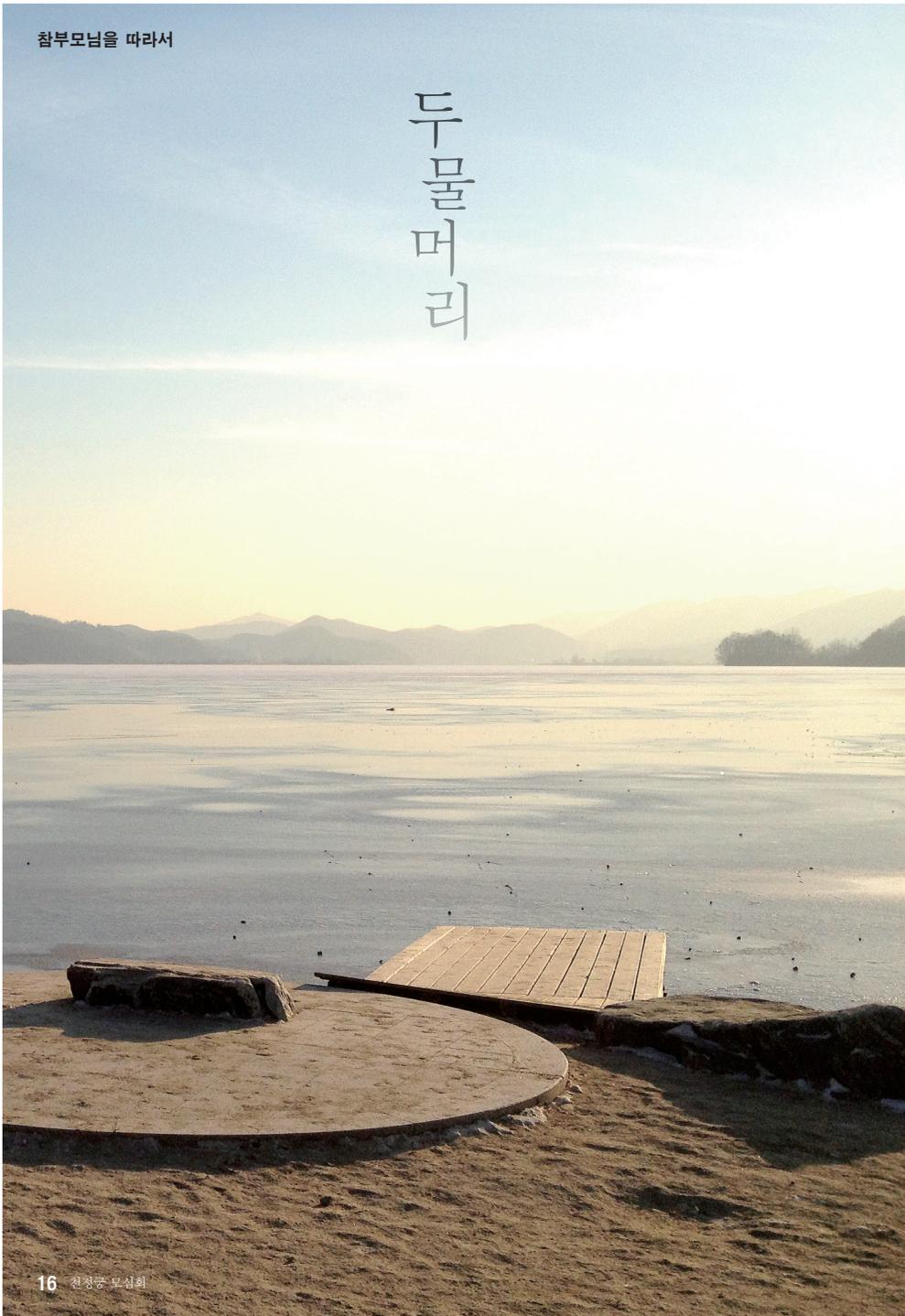
천주청평수련원 방문 2013. 5. 11

참어머님께서 수련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카페에서 동행한 최연아님 문훈숙님 일행과 담소를 나누던 사이 참어머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련생들이 하나 둘씩 사랑나무에 모여 들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시며 수련생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참아버님과 함께 철쭉꽃을 감상하시며 사진 찍으셨던 곳들을 한 곳 한 곳 둘러보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당시를 회상하시듯 올해도 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시며 참아버님과 함께 드셨던 생명수를 찾으셨습니다. 천승대에 오르는 길목 옆 바위에 앉아서서 목을 축이신 뒤에는 주위에 있는 심정나무 만물나무 충성나무를 차례 차례 어루만지시고 청평호수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셨습니다.

천정궁으로 돌아오시는 길에는 잠시 철쭉공원에서 참아버님과 함께 낚시를 하셨던 연못을 둘러보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당시의 모습을 지켜보았을 연자방아와 햇볕에 따뜻해진 바위들을 쓰디듬으며 산책로를 따라 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侍



두물머리



남강강 북강강 하나된 두물머리
 개개의 기억이 놓리는 우리와 항상

두물경

양평 두물머리는 깊은 산과 넓은 들판을 흘러온 남한강과 북한강이 서로의 사연을 얼싸안고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두 강이 만나는 두물머리는 낭만적인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강물이 만나듯 분단된 조국이 다시 통일되기를 염원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참부모님께서 사랑의 기쁨과 아픔이 공존하는 이 자리를 방문하셨습니다. 정답게 손을 맞잡고 산책하시는 참부모님의 모습에 두물머리의 서정적인 풍경도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늘부모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용서하며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참부모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되어 흐르는 강물도 참부모님의 뜻처럼 사랑의 질서를 따라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待

천 년 바 위



참아버님께 노래는 말씀으로는 차마 꺼내실 수 없는 깊은 심정과 회한을 토로 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으셨던 모든 희노애락을 노래자락에 실어 보내며 잊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아버님의 애창곡에는 깊은 사연과 눈물 그리고 시련을 극복하는 기쁨과 화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 박정식의 노래 천년바위는 나그네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나그네는 비록 마음 둘 곳조차 없이 세상을 떠돌고 있지만, 부질없는 욕심을 버리고 생과 사의 진리를 찾고자 고뇌합니다. 편안한 안식처를 구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기쁨으로 내가 머무는 자리를 밝혀 주고자 다짐하며 모든 그리움과 상념들을 잊으려 합니다. 나그네는 근본을 찾기 위해 자기를 잊고 천 년 세월의 풍파를 묵묵히 버티는 바위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나그네의 처지와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만을 붙잡고 창조주의 뜻이 정착할 자리를 찾아 전세계를 돌아보셔야 했던 참아버님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편히 쉴 집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오직 하늘부모님의 한(恨)을 풀어드리기 위해 살아오신 참아버님의 93성상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늘부모님을 위로하셨고 타락의 혈통을 복귀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일국이 지상에 안착하도록 천 년과 같은 하루를 살아오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서는 모진 풍파에 시달리고 동서남북으로 떠밀리더라도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래 천년바위는 인생길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며 성가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가사에서 동녘하늘은 한국을 중심한 참부모님이 계시는 방향이며, 천년바위는 타락을 청산하고 창조목적에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이정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중심한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님(하늘부모님, 참부모님)'이 숨쉬

천년바위

작사 | 장경수, 작곡 | 장욱조, 노래 | 박정식

동녘 저편에 먼동이 트면 철새처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마음 줄 곳을 집시 되어 찾으리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서산 저 너머 해가 기울면 접으리라 날개를
님이 숨쉬고 님이 계신 곳 기쁨으로 밝히려라
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복판에 서서 천년바위 되리라
천일국을 완성하리라



고 님이 계신 곳으로 가사를 바꾸어 부르셨으며, '세월이 오가는 길목'이 아닌 '복판', 즉 중심에 서서 천년바위가 되고 '천일국을 완성하리라'고 노래하셨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섭리노정의 한 중심에 우뚝 서서 천년 억년 억만년의 세월을 버티는 천년바위가 되고, 참부모님과 함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남아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담아 노래하실 때, 참아버님께 서는 결코 쓸쓸한 상념에 젖은 나그네가 아니셨습니다. 어제를 청산하고 내일을 열겠노라는 뜨거운 다짐으로 가득 찬 개척자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이 깊은 계곡을 품듯 억만 년의 사연과 눈물을 품어 안은 하늘부모님의 모습이셨습니다. [待]



Interview

노래와 심정

천년바위를 몇번이나 반복해서 부르도록 하시며 묵묵히 듣고 계시던 참아버님의 모습이 언제나 생각납니다. 섭리사의 깊은 시름을 노래로 풀어내시는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시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부분에서는 목놓아 큰 소리로 외치듯 노래하곤 하셨습니다.

하늘 앞에 조건이 될까 염려하시며 그 억울한 사연들과 기막힌 심정을 오직 사랑으로 풀어 안으셨던 참아버님의 사정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깊은 복귀의 한을 한 가락 노래에 담아 훌훌 털어내고는 작은 눈가에 맺힌 눈

물조차 보이지 않도록 더욱 밝게 웃으시는 참아버님이셨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오가는 길목이 아니라 한 중심 복판에 천년 만년 억년을 버티고 서서 하늘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노라고 다짐하듯 노래하시던 참아버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 앞에서 노래할 때마다 저는 참부모님의 심정을 공감하도록 기도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노래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참부모님께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것이 제가 참부모님을 모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정원주 보좌관



철쭉정화제 천정궁 특별순례

참아버님의 그리움으로
가득 찼던 천정궁 순례

천일국 원년의 봄을 여는 천정궁 순례

[2013년 천운상속 철쭉정화제 청평특별대역사]를 맞이해서 천정궁에서는 특별순례를 마련해 식구님들을 만났습니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천주청평수련원의 대역사에 맞춰 순례일정을 잡았고, 셔틀버스도 운행했습니다.

초봄의 추위가 조금 거센 탓이었는지 철쭉은 이제서야 봉오리를 트는 중이었습니다. 울긋불긋 철쭉으로 가득 채워진 풍경을 바랬지만 별도 행사날에 맞춰 살아난 듯 했습니다. 다행히 3일간은 좋은 날씨였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 일이 있어서인지 청평성지 일대가 북적거리는 모습이 예전 같지는 않았습다. 그럼에도 천정궁은 오히려 더 많은 식구님이 찾아 주셨습니다. 대역사에 참여하는 식구 수도 그렇고 천정궁 순례시간도 좀 더 줄었는데도 오시는 분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참아버님 성화로 인해 천정궁을 찾아 추모의 정성을 드리고자 하는 식구님들의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순례는 자유관람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식구님들이 정문에 들어서면 간단한 설명을 받고 난 뒤 특별 코너를 찾아 가는 등 관람구역내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누렸습다. 그 중에서 단연 인기는 특별 전시실과 기도실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을 뵈고 싶어하는 식구님들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참부모님의 노정 그리고 추억의 사진

특별전시의 주제는 “추억의 참부모님 사진전 - 회상”이었습니다. 영육계를 넘나들며 섭리하시는 참부모님 앞에 추억이나 회상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무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빈 자리를 느끼게 될 때 드는 허전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진전은 심정적인 공허함도 채우고 참아버님의 생애도 돌아보는 위안과 긍지의 자리라고 봅니다. 메시아, 구세주, 참부모의 자리에서 승리의 노정을 걸어오신 천지인 참부모님의 섭리사의 주요



순간들, 참자녀님, 손주님들과 즐거운 한때의 장면, 세계 순회를 하시는 가운데 양위분께서 다정하게 계시는 장면 등 총 42점의 생생한 컷을 한편의 영화처럼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곡절의 사연 전부를 펼쳐 보일 수는 없지만 참아버님을 그리워하며 회상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시실 내부에는 영상으로도 참부모님을 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전시실 한 가운데 영상기기를 설치해 참아버님 성화식과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식구님들은 당시를 떠올리며 슬픔과 그리움에 젖기도 하셨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한 그리움을 전하며

순례오신 식구님들을 보고 있으면 ‘천정궁 순례’는 ‘기도와 정성’이라 답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천성산의 상쾌한 공기와 확트인 전망에 푸른 자연풍경이 더해진 천혜의 환경이 감싼 천정궁의 경건하고 엄숙한 기도실은 그야말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기도실에서는 전면 스크린에 비쳐진 본향원을 바라보며 참아버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안타깝고

애절한 만큼 회개와 반성을 하고, 기쁨과 희망을 담아 결의와 다짐을 합니다. 아쉬운 마음이 더해서인지 참부모님께 쓰는 식구님들의 편지글이 유난히 길어 보였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편지를 쓰는 어린이도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쓴 짧은 편지가 웬지모를 진한 여운이 납니다.

식구님들의 행복은 천정궁의 또 다른 기쁨

순례오신 모심회 식구님들을 위한 무료 기념촬영 서비스가 이번부터는 촬영 후 바로 인화해서 전해 드리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식구님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차례를 기다리는 식구님 줄로 촬영부스는 내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포토존은 천성산이 병풍처럼 둘러친 분수대 앞이었고 대부분의 식구님들은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퇴관 시간으로 바로 사진을 건네받지 못

한 분들은 수련원 부스에서 찾아갔습니다. 자주 오지도 못하는 먼 타국의 식구님들에게는 천정궁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소중한 보물이기에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큰 뿌듯함으로 남습니다. 식구님들의 행복이 샘솟는 만큼 천정궁의 기쁨도 배가 됩니다.



그리움의 천정궁 순례

철쭉정화제 기간 동안의 천정궁 순례는 2천여 명의 식구님들이 함께하셨습니다. 모심회에 새 회원으로 가입해주신 식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느 때보다 식구님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참아버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 채운 천정궁 순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待



풍경 속 말씀 한 토막

천주청평수련원에서는 찬양을 마치고 나면 천화관 옆 오르막길은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다름아니라 이 백색행렬은 천정궁을 순례하려는 식구님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줄지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천정궁이 얼마나 귀중한 곳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청평에 천정궁이 생겨났다는 것, 그것을 꿈같은 얘기로 알고 상상적인 얘기로 알았는데 꿈나라에도 없을 수 있는 꿈 얘기와 같이 생각한 것이 현실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해서 자기가 정성들이지 못했던 그 이상의 눈물을 흘리고 비장한 사정으로 엮어진 그 위에서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에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말 못할 고난과 역경을 그리고 한없는 정성을 거쳐 꿈이 실현된 곳이라 하신 말씀 속에 천정궁의 무한한 가치와 정성의 봉헌물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비록 참부모님이 바라시는 자격까지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넓고 크신 은사로 천정궁을 들어가는 시대적인 혜택과 축복을 받아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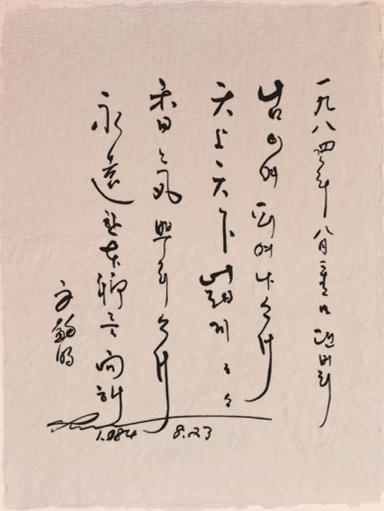


천정궁 순례기념 가족사진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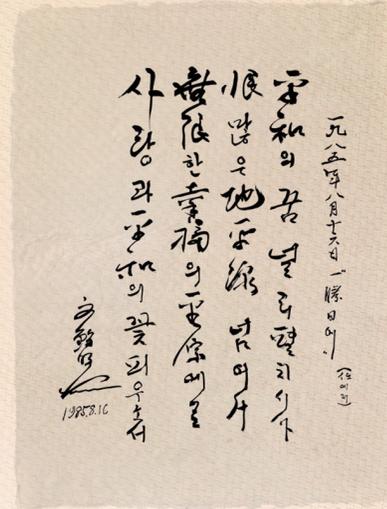
따뜻한 가족애로 천정궁을 수놓은 식구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
 성지순례 이벤트에 참여한 식구 여러분의 사진을 만나요



기쁨과 감동, 경외와 감사로 채워진 천정궁 순례는 식구님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온전한 결실을 맺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화제부터 가족사진 이벤트가 촬영 후 즉석으로 인화해서 드리는 서비스로 새로워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식구님들의 얼굴에 가득담은 밝고 환한 표정입니다. 햇빛에 얼굴 좀 쨍그러도 환한 미소로 활기 있고 생명력 넘치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천정궁에서 남긴 사진 한 장을 소중히 받아가는 식구님들의 모습에 더욱 뜻깊어지는 이벤트가 되는 순간입니다.



‘님이여 피어나소서’
천상천하 넓게 넓게
향기 뿌리소서
영원한 본향을 향해



‘임(任)에게’
평화의 꿈 널리 펼치시사
한 많은 지평선 넘어서
무한한 행복의 평원으로
사랑과 평화의 꽃 피우소서

참부모님의 시(詩)

1984년 통일교회는 홍진님의 성화와 참아버님의 덴버리 연방교도소 수감으로 크나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조국의 해방과 함께 출발한 참아버님의 공생애 40년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마지막 3년간의 고비를 넘어서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힘겨웠던 광야노정에 승리하고 하늘의 뜻이 지상에 안착하기 위해 모두의 정성이 하나되어야 했습니다.

당시 참어머님께서 참자녀님들과 함께 치열한 섭리의 일선에 앞장서시며 심정적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덴버리 옥중에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써 주시며 그 동안 깊이 품어오셨던 꽃이 활짝 피어나 그 향기로 온 세상을 채우도록 참어머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 ‘님이여 피어나소서’ (1984.8.23.)를 받으신 참어머님께서 열흘 뒤인 1984년 9월 2일, 제 13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시며 참아버님을 대신한 첫 공식석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효진님께서 참아버님의 말씀을 대독하시며 참어머님 곁을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흔들림 없는 참가정의 위상을 따라 모든 식구들의 정성이 하나되었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의 날 일승일(一勝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 참아버님께서 참어머님의 노고를 치하하시며 시 ‘임(任)에게’ (1985.8.16.)를 써 주셨습니다. 참어머님을 영원한 본향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하시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던 이 시는 참아버님의 친필 그대로 천정궁 본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려한 필체로 적어주셨던 참아버님의 시 두 편에는 광야의 고난과 시련들을 더욱 깊은 사랑으로 승리하셨던 참아버님의 심정세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승리의 확신과 여유를 잃지 않으시고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셨던 참아버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待



송거원세지년(送去怨世之年) 환래행세지년(歡來幸世之年)
천주지원효진(天宙之願孝進) 중생지원충진(衆生之願忠進)

참아버님의 휘호(揮毫)

1955년 10월 7일 참아버님께서 서울 용산구 청과동 1가 71-3번지의 가옥을 구입하셔서 본부교회를 이전하셨습니다. 모진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며 섭리의 중심지를 찾아 서울 여러 곳을 옮겨 다니셔야 했던 참아버님께서 비로소 정착하셨던 성지입니다. 이곳에서 참부모님의 성혼과 함께 축복가정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본부교회 성전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한복을 입으신 참아버님께서 “원망스러운 세월은 다 떠나 보내고 이제 행복의 세계를 맞이하자”는 뜻을 담아 휘호를 내려주셨습니다. 충효의 도리를 다해 뜻을 향해 나아갈 것을 강조하신 이 날의 말씀은 뜻길 뜻의 장 복귀의 심정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는 온 인류 앞에 참된 사랑과 행복의 세계를 열어주고자 하셨던 참아버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해마다 연두표어를 정하시고 유려한 필체로 휘호를 내려주셨던 참아버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侍



당시 청파동 구분부교회 모습

자료기증 안내

■ 회원님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천정궁박물관은 참부모님과 직접 관련된 물품들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그 생애와 업적을 후대에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물품들을 천정궁박물관에 맡겨 주시면 전문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지켜가겠습니다.



자료기증 문의처

- 자료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우편, E-mail 모두 가능)
- 보내실 곳 : 우477-855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14-1 | 천정궁박물관 전시팀 심용희 주임
- E-mail: exhibition2020@cjgm.kr | Tel: 031-589-1000 | Fax: 031-589-1008

참아버님 천주성화 1주년 특별전시 : 참아버님 유품전

돌아보면 오직 뜻만을 위해 살아오신 참아버님의 93성상이셨습니다. 뜨거운 불길과 같은 말씀을 내려주시고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눈물로 하늘부모님을 위로하셨던 참아버님의 모습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천주성화 1주년을 맞이하여 뜻을 위해 살아오신 참아버님의 생애노정을 회상하며 우리에게 남겨주신 뜻과 심정을 뜨겁게 되살리고자 합니다. 식구님들을 위해 천정궁에서 보존하고 있는 참아버님의 의복과 각종 섭리적인 증거자료들을 공개하여 특별전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천지인참부모님의 생애노정과 생전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릴 이번 특별전을 통해 역사의 증인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 待



참아버님 천주성화 1주년 특별전시

참아버님 유품전

일시 천일국 원년 천력 7월 16-18일
(2013.8.22-24.)

장소 천정궁박물관

천정궁모심회의 가치와 의의

- 회원님들의 '모심의 삶'

천정궁모심회는 참부모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시대적 혜택 가운데, 실제의 참부모님을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모시고자 하는 심정의 표현이요,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바라기 전에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 나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높고 귀한 것을 대하여는 머리를 숙이고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을망정, 높고 귀한 하늘의 심정을 대하여 모시고 싶어하는 것이 지음 받은 인간 본연의 심정입니다.”(60.2.14)

실체의 참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모시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참부모를 왜 모셔야 되느냐? 영계와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만물의 부모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고, 나를 낳아 준 부모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고, 이 영계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지 못했지만, 참부모를 모심으로써 효자의 자격을 대신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97.9.30)

참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모시는 것에는 특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혜택이요, 영광이요 자랑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재림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모셔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의 혈통을 받아 생활했지만 복귀의 한 노정을 탕감해 놓고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아담 해와가 모시지 못한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갔다는 조건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61.4.15) ☞

천정궁모심회와 함께 하는 정성생활

01 성초 기도

모심회는 매년 원단 새해 벽두에 참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점화하신 성초에서 번식한 성초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하늘부모님을 첫 마음으로 대하시는 참부모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성초기도를 하면 더욱 정성이 모여질 것입니다.

02 현금정성

모심회 회비는 현금의 기준으로 모여지고 사용됩니다. 작은 조건이지만 참부모님을 직접적으로 모시는데 사용되므로 큰 정성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03 천정궁 순례 정성

모심회는 천주청평수련원에서 개최하는 특별대역사 기간에 모심회 회원들이 순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참부모님을 친견하는 심정으로 천정궁 곳곳을 순례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참부모님의 심정을 상속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카드 소지합니다

회원님이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천정궁에 편하게 안식하시도록 정성을 드리심을 천정궁에서 인정하는 증거로 회원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에 천지인참부모님을 상징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어 늘 휴대하시며천지인참부모님과 함께 체출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 뒷면에 바코드에 있는 숫자가 회원님의 회원번호입니다.

밖에서는 참부모님 증거자로 안에서는 모심회 전도사로

글 | 북아미치교구 후시미교회 이정희 식구님 (3만쌍 일한가정)



'나눔공간'에 참여해주신 이정희 식구님은 참아버님의 자서전을 가지고 전도활동을 하는 '천일국부흥단'의 단원이자, 천정궁모심회를 열성적으로 알리는 모심회 전도사이시기도 합니다. 이정희 식구님이 모심회에 가입한 후 지금까지 보내주신 감사의 글을 토대로 모든 회원들과 함께 감사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고생하시는 참부모님을 생각하면 저희 집에서 정말로 참부모님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서 모시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침 2010년 하계 청평대역사 천정궁 특별순례에 참가했을 때 모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지 못하더라도 모심회를 통해서 마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심회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한 후에 참부모님께서 늘 곁에서 저희 가정을 지켜보고 계시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섭리적인 의무감이나 사명감보다 사랑하는 참부모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안심시켜 드리

고 싶은 자녀라면 자연히 가지는 마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모심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 믿음의 자녀, 남편의 믿음의 부모를 비롯한 주변에 많은 식구님에게 모심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입은 강요보다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모심회에 가입할 때는 감사와 기쁨의 심정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11명의 식구님이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식구님 모두 참부모님을 함께 모실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심회 소개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에 제 남편의 동참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작년에 참여버님 성화 후 홀로 계시는 참여머님을 생각하면서 이전보다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러한 심정을 전했다니 남편은 제 마음을 받아 주었고 남편도 가입하여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천주에 한 명 밖에 없는 영원한 반려자인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참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일본에서 가정 출발한 이래 17년을 되돌아보면 기쁨 때도 있고 시련의 때도 있었지만 모두가 부족한 저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일한(日韓)축복을 주신 참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천정궁모심회의 일원으로서, 또한 천일국부흥단의 일원으로서, 70억 인류를 구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참부모님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저희 부부가 대신 짊어지드릴 수 있도록 일본에서 참부모님을 증거하며 열심히 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 안에서도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을 온전히 모시는 참가정을 이루기 위해 늘 감사와 기쁨의 심정으로 살겠습니다. 하늘부모님 천지인참부모님 감사합니다. 侍

* 천일국부흥단(天-國復興團)은 참여머님께서 명명해주신 전도단으로, 현재 3000명의 일본 식구가 활동 중입니다.

천정궁모심회 회원 모집

- 참부모님께 기쁨을, 식구님께 은혜를

천정궁모심회는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을 각별한 정성으로 모시고자 하는 회원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천정궁을 중심으로 천지인참부모님을 직접 모시며 특별한 기쁨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에서 가입 신청하실 경우

STEP 1 : 신청서 작성하기

- 천정궁모심회 홈페이지(<http://member.cjgm.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천정궁모심회에 문의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수령

STEP 2 : 신청서 보내기

- 양식에 맞도록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신청서 작성
- E-mail, FAX, 우편 등으로 신청서 발송

천주청평수련원내 '천정궁모심회 안내 부스'에서 가입 신청할 경우

- 부스 운영 일시 : 주말수련회 첫째 날 14:00~18:00
단, 조상축복식이 있을 경우 수련회 둘째 날도 운영.
(시간은 당일 수련원내 게시판에 공지.)
- 부스 운영 장소: 천성왕림궁전 지하2층



간증 모집

천정궁모심회는 회원님의 간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간증은 회보에 실어 회원님들에게 신앙의 현장을 생생히 전하고, 살아계신 하늘부모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 모집 간증 : 모심회, 천정궁 순례, 금번 회보에 대한 간증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축복가정, 소속교회, 실명 기재 여부
(원하실 경우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표기합니다.)
- 응모방법 : E-mail 또는 FAX

회원정보 변경은 꼭 알려주세요

천정궁모심회에서 발송해드리는 회보, 연하장, 각종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의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천정궁모심회로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mail 등록을 꼭 하세요

천정궁모심회에서는 E-mail로 각종 소식을 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서에 기입하거나 천정궁모심회로 연락하여 회원님의 이름과 회원번호를 말씀해주시면 E-mail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모심의 삶

2013년호, 통권 제4호 | 2013년 7월 31일 발행 | 연간 비매품, 회원용
 발행 천정궁모심회(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14-1, 전화 031-589-1096)
 발행인 훈모 김효남 | 기획 천정궁박물관 사무국 | 총괄진행 이정복
 편집 가와타야스나오, 박종근, 설홍석, 심용희, 황학순 | 일문번역 사카이카카히사, 조히데유기
 디자인 디자인하다 | 인쇄 모모프린코

© 천정궁 이 회보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Printed in Korea, 2013

모심 의 삶



“타락의 혈통을 받아 생활했지만 복귀의 한 노정을 탄감해 놓고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이담 해와가 모시지 못한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갔다는 조건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61.4.15)